

# 마크롱, 이란핵 양보...트럼프 마음 돌릴까

### 트럼프 “최악의 협상” 비난 핵 프로그램 영구 제한 촉구 마크롱 제재 강화 요구 수용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핵 합의의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관련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 간에 체결된 협정이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서방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합의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을 ‘최악’이라고 지적하며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 12일이 시한인 대이란 제재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해 이란 핵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탄도미사일 개발을 사찰하고, 10~15년으로 한정된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기간을 폐지해 영구히 묶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2015년 이란 핵 합의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핵 프로그램 제한 조치 관련 일몰조항, 예멘·시리아·이라크 등에서의 이란의 정치적 활동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수정안에 대해 “기존 합의를 파기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간 염려를 모두 커버하는 새로운 내용을 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 지역에 긴장 고조나 핵확산이 없도록 확실하고 싶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길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란 핵 협정 유지를 요구했다.

이어 “프랑스와 우방은 지속가능한 안정을 바란다”며 “새 합의와 관련한 논의에는 유럽 동맹국을 넘어 러시아와 터키 등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을 고려할 때 마크롱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오른쪽)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오른쪽)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 마련된 국민 만찬장에 도착한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가운데 왼쪽), 부인 브리짓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연합뉴스

통령의 수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 등을 보완하면서 이란 주변의 지정학적 여건까지 고려한 ‘포괄적 버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그의 수정안이 기존 합의와 병행해서 별도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고 AFP는 덧붙였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 제재 유예 시한인 오는 12일 이후에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재앙”, “절대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 끔찍하고 미친 합의”라며 원칙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동시에 수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드러내 향후 새로운 핵 합의 타결 가능성도 열었다.

그는 새 합의는 ‘확고한 토대’ 위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다육 큰 밑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합의는 예멘, 시리아 등 중동

다른 지역까지 커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이란은 아직 구체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이 핵합의에서 철수한다면 준엄하고 가혹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파기, 탈퇴를 강하게 경고하면서도 이를 유지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핵무기 개발 선을 그었지만 이제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연합뉴스

## 일본, 남북회담 만찬 ‘독도 디저트’에 판죽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만찬 테이블에 독도 지도가 들어간 디저트를 올릴 계획인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NHK가 25일 보도했다.

청와대는 전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만찬 자리에 오를 메뉴를 공개했다. 이 중에는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가 곁들여진 디저트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와 면담하면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극히 유감이다”며 만찬에 이 디저트를 제공하지 말아 달라고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외교부에 같은 내용의 항의를 했다. /연합뉴스

## 일본 자위대 ‘통합사령부’ 신설 막판 작업

일본이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처럼 육해공 지휘부를 아우르는 ‘통합사령부’를 자위대에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방위성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화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창설을 연내 개정될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 막판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방위대강은 10년 단위로 마련하는 일본 정부의 핵심 방위 전략이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력 정비와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것으로 차기 계획은 2019~2023년이 적용 대상 시다.

현재 자위대는 육상·해상·항공 등 3개 자위대 조직이 개별적으로 운영된다. 통합사령부 조직이 갖기 시작하면 역할이 총리나 방위성의 지시를 전달하는 일로 한정될 것이다.

그동안은 대형 재해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만 ‘통합임무부대(JTF)’가 임시기구로 설치됐었지만, 통합사령부가 생기면 통합사령관이 3개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해 유사시 더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방위성은 통합사령부 설치의 이유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들었다. 미사일 외에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방식의 공격이 함께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명분 중 하나다.

일본은 그동안 제국주의 시절에 대한 반성으로 군부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위대에 통합 조직을 두는 것을 꺼려했었지만,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군국주의가 부상하면서 정경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전에는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와 달리 육상자위대에는 총괄 조직을 두지 않았으나 지난해 육상자위대 창설 후 64년만에 처음으로 사령부인 ‘육상총대’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연합뉴스



훈련입니다...보라카이섬 오늘부터 폐쇄 6개월간 폐쇄되는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 섬에서 25일(현지시간) 경찰이 해변에서 시위·테러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일간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26일부터 보라카이 섬 카그반 항구에서만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신분증을 소지한 주민의 출입이 허용되고 나머지 15개 항구는 봉쇄된다. 해군과 기관총으로 무장한 해안경비대가 보라카이 섬 해안을 따라 순찰활동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 플라스틱 먹은 북극 빙하

### 미세플라스틱 검출량 3배 ↑

북극해의 빙하핵(ice core)에서 이전보다 2~3배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25일 BBC에 따르면 독일 알프레트 베게너 연구소의 일가 페켄 연구팀은 2014

년 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북극해 5곳에서 빙하핵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머리카락 직경의 6분의 1에 불과한 11μm 크기를 포함한 미세플라스틱이 모든 핵에서 발견됐다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보고했다. 미세플라스틱 검출도는 얼음 1ℓ에 1만2000개에 달했다. 이는

이전보다 2~3배 많다. 종류도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등과 같은 포장재에서 페인트, 나일론, 폴리에스터, 담배 필터에 사용되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초산섬유소) 등 17종에 달했다.

이 플라스틱들은 태평양의 거대한 바다 쓰레기대에 섞여 북극해까지 흘러들었거나 북극해 인근의 선박이나 어항에서 나온 것들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 결과

는 북극해의 해빙이 엄청난 양의 미세플라스틱을 갖고 떠다니고 있으며, 해빙이 녹으면 미세플라스틱이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들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플러머스해양연구소의 미세플라스틱 과학자 페니 린드루 박사는 “기후변화가 해빙을 가속하고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 신축 원룸매매

◎ 전대 정문 2분

◎ 총 4층건물

(원룸 13개, 투룸6개)  
4층(안집)-최고급시설

보7천만 월수익 700만  
◆ 매가 : 13억 5천 ◆  
(용 3억5천 가능)

-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500만 ▶매가 8억3천
- ② 산정동원바로앞(코너)1층상가(2개)원룸(12개) 4층(최고급주택)월세 550만 ▶매가 9억5천만
- ③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주인직매 010-6670-9800

## 신축 건물 매매

월산동 3층 건물

월수익 900만

◆ 매가 : 22억 ◆  
(용 1억 보 1억4천)

- ① 상무지구 6층 상가 월 수익 50만 ▶매가 8천만
- ② 남구 진월동(4층 상가건물)▶매가 5억
-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도(오피스텔 개발부지) 토지 53평 건물 222평(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9억

010-6670-9800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남구 주월동 (4층 상가주택) 토 71평, 건 179평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5) 북구 문흥동 (3층원룸) 토 57평, 건 101평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3억6천
2) 서구 화정동 (5층 상가빌딩) 토 125평, 건 460평 광주 새우리병원 앞 (코너) ▶감정가 13억2천 → 최저가13억2천	6) 동구 학동 (3층원룸) 토 81평, 건 101평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3천
3)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	7)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
4) 화순 도곡면(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월수익 5,000만 예상) ▶감정가 5억3천 → 최저가 5억3천	8)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9)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3억7천
	10) 남구 주월동 (마트) 토 108평, 건 83평 감정가 14억6천 → 최저가 14억6천
	11) 서구 매월동 (정예식당) 토 3,302평, 건 3,955평 감정가 2백70억 → 최저가 190억

A.P.T	주택	토지,기타
① 서구 용봉동 주안아파트 (24평)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⑥ 북구 용흥동 주택 토지 33평 건물 17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8천	⑩ 광안구 월산동 토지 1999평, 건물 240평 감정가 60억 → 최저가 48억
② 서구 내방동 배방주안아파트(24평)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⑦ 광안구 월곡동 (2층주택) 토지 68평 건물 73평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2억5천	⑪ 광안구 월산동 (공적) 토지 2200평 건물 1200평 감정가 60억 → 최저가 48억
③ 서구 화정동 마에미아파트 (25평)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⑧ 남구 주월동 주택 토지 40평 건물 42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⑫ 광안구 비포동 (임대) 13,999평 건물 1999평 → 최저가 48억
④ 광안구 선동 신부영 (25평)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⑨ 북구 용봉동 토지 37평 건물 20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⑬ 서구 용봉동 (농지) 1300평 건물 6999평 → 최저가 48억

010-7384-7800 010-6670-9800

## 경매 교육 (5월초 개강)

-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 ②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 ③ 무료반영연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 직원구함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